



박광태 광주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일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맨 왼쪽), 금광기업 고제철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보성건설 김기우 사장으로부터 하게 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기원 후원금을 전달받고 있다.

## 중흥건설·금광기업·보성건설

### U대회 유치 후원금 각 1억씩 기탁

중흥건설(회장 정창선), 금광기업(회장 고제철), 보성건설(회장 이기승)이 2013 하계 U대회 유치 후원금으로 1억원씩을 기탁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고제철 금광기업 회장, 김기우 보성건설 사장은 1일 광주시청을 방문,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1억원씩 모두 3억원의 U대회 유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들은 “2013 하계 U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모아진 후원금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탁한 20억원을 비롯해 광주은행 5억원, 삼성건설 3억원, 모아건설 2억원에 이날 3억원을 포함, 모두 33억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박석무씨 광주서 ‘다산’ 주제 특강



박석무 한국고전번역원장(단국대 이사장)이 3일 광주 상무지구 (사)시민문화회의 강의실에서 ‘다산 사상과 현대 사회’를 주제로 공개 특강을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아시아문화컨서트 양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서 박 원장은 다산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통해 소개한다.

‘다산 전문가’로 꼽히는 박 원장은 다산 일대기를 다룬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한길사 간) 등을 펴낸 바 있다. 문의 062-372-3351.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고도원씨 오늘 동신대서 특강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2시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특강한다.

동신대가 매학기 명사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신연단’의 올해 첫 강사로 나서는 고 이사장은 ‘꿈 너머 꿈’을 주제로 강의한다. 고 이사장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뿌리깊은 나무’ 기자, ‘중앙일보’ 기자, ‘청와대 연설담당 비서관(1급)’ 등을 거쳐 현재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발행인, (재)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이재욱 문성중·고 설립자 별세



이재욱 문성중·고등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전남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함평 나산 출신인 고인은 전남도 곡물협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 1982년 학교법인 풍산학원을 설립, 문성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2세 교육에 헌신했다.

유족으로는 2남6녀, 민소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밭인은 3일(목) 오전 10시, 장지는 함평 나산면 우치리 선산이다. 연락처 062-670-7500.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금강산식당 224-0808.

▲재광 순천중고등학교 동문테니스 월례대회=5일(토) 오후 2시30분 임동 일신방직코트. 016-652-8040.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회지 시조선산 한식 행사 참례=5일(토) 오전 6시 상록회관앞 출발. 011-9615-8567.

향우회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채정)=6일(일) 오후 7시 두암동 조선의 땅. 262-332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 여수 묘도초교 전교생이 시인 됐다

### ‘고양이 삶의 아기 나무들’ 시집 발간

전교생이 시를 지어 시집을 발간한 초등학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학교는 여수시 삼일동 묘도초등학교.

전교생 30명이 올해 초 ‘고양이 삶의 아기 나무들’이란 시집을 발간했다. 초등학교가 위치한 섬(猫島) 모양이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시집 제목이 이렇게 지었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삼을 둘러싸 바다와

산, 나무, 꽃 등 자연을 감상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을 시로 만들어 냈다.

시집에는 어린이가 쓴 220편과 교직원과 학부모, 총동문회장 등이 지난 30여편이 실려있다.

“체소밭/많은 체소가/있는 체소밭//우리 전교생/가면/반갑다는 듯/갖가지/체소 무럭무럭/자라고//다른 학생/오면/금방 나라가는 듯/별

례를 보내지요.  
//(박지영·6학년·재소발)

특히 시집에는 지체장애 어린이의 그림 한 편이 시 대신 실려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묘도초등학교가 시집을 발간한 것은 지난해부터. 고광운 교장이 부임한 뒤 전교생이 1주일에 1편 이상 시를



최근 시집 ‘고양이 삶의 아기 나무들’을 발간한 여수 묘도초등학교 학생들.

지어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고, 이렇게 모인 시를 시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학교 측은 발간한 시집을 시중에 판매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어린날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선물로 나눠줬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모교 해남 산이서초교에 5년째 장학금

김지호 귀뚜라미홈시스인천 대표

이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중학생 11명에게 50만원씩, 고교생 17명에게 70만원씩, 대학생 3명에게 100만원씩 31명에게 모두 2천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사장은 또 모교인 해남 산이서초교에 5년째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 “자서전은 제2의 인생 설계하는 과정”

### ‘자서전 학교’ 여는 광주YMCA 정의준 간사



“자서전은 평범하지만 자신에게는 아주 특별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는 22일 ‘내 인생의 자서전학교’를 여는 광주YMCA 정의준(32) 간사는 “자서전 짐풀은 인생의 갈 무리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구현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작업이다”라고 말했다.

자서전학교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기록을 후대에 남김으로써 삶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광주YMCA가 마련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학 명예교수 등 문학박사 3명이 글쓰기 등 자서전 출판을 돋는다. 학교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개설되며 첫 수업은 22일에 진행된다.

자신을 찾아 떠나는 자유연상법과 디지털카메라 활용법, 취재·인터뷰 방법, 편집·인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서전 출판 요령을 배우게 된다. 특히 강의가 끝나는 11월에는 공동 출판기념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 간사는 “어르신들은 술한 어려움 속에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세계에 주목받는 경제대국으로 가꿔온 주역들이었다”며 “그 연륜과 경험을 되살려 ‘사회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게 학교 개설의 또 다른 목적이”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YMCA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들이 연륜과 경험을 사회에 풀어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메모하는 모습을 본 딸이 권유해 등록했다는 70대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60대 중반 할머니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노인 소외현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서전학교는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며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앞선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34-0074.

할을 해달라는 게 학교 개설의 또 다른 목적이”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YMCA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들이 연륜과 경험을 사회에 풀어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메모하는 모습을 본 딸이 권유해 등록했다는 70대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60대 중반 할머니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노인 소외현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서전학교는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며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신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앞선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34-0074.

김병하·김용옥·이동근씨

### 광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광주 언론중재위원회 김병하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새로 위촉됐다.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는 1일 최근 임기가 만료된 김규장(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판사로 김병하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위촉했다. 또 김성(전 광남일보 편집국장), 이수애(목포대 교수) 위원이 지난달 30일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신임 위원에 김용옥 전 전남일보 주필, 이동근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김병하 광주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 김병하 광주지법 부장판사 ▲중재 위원 : 김용옥 전 전남일보 주필, 이동근 조선대 교수, 이 훈 전 무등일보 주필, 안재근 변호사.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 도교육청, 여수·순천서 진학지도 간담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정환)은 1일 순천제일고등학교에서 여수·순천 일반계 고등학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학년도 대입 정보 및 진학지도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 광주과기원-생산기술연 교류 협약식



문승현 광주과기원 원장 직무대행(왼쪽에서 일곱번째)과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 1일 광주과기원 행정동 4층 소회의실에서 학술연구교류 협약식을 맺었다. /광주과기원 제공

### 산업단지공단 ‘기업도우미센터’ 현판식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기)는 1일 광주 첨단 디지털 지역본부에서 ‘기업도우미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금강산식당 224-0808.

▲재광 순천중고등학교 동문테니스 월례대회=5일(토) 오후 2시30분 임동 일신방직코트. 016-652-8040.

종친회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한영) 부산회지 시조선산 한식 행사 참례=5일(토) 오전 6시 상록회관앞 출발. 011-9615-8567.

향우회

▲재광 곡성군 삼기면 향우회(회장 김채정)=6일(일) 오후 7시 두암동 조선의 땅. 262-332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학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 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 = 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종금반(월·저녁 7시 30분).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